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구성안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



마리아 바사르트 / 김정하 옮김

키워드: #생명력, #자기긍정, #치유, #관계, #가족, #가정 폭력 작성: 봄내중 한 권 읽기 수평선 연구회



Ⅰ. 함께 읽을 책

●●● 선정 이유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다. 오랜 시간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열다섯 소녀 아나는 아버지를 찌르고 보호 센터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룸메이트에게 일기 쓰기를 권유받고 아나는 자신의 마음을 일기로 풀어 나간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서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던 아나가 천천히 본연의 생명력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감동적이다.

무엇인지 알아보기도 힘든 검은 덩어리였던 아나의 마음이 차츰 밝은 빛으로 변하는 과정은 읽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불안정하고 복잡하며, 모순적인 마음을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단단하게 바꾸어 가는 모습이 인상 깊다. 또한 아나가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을 직면하고, 자연과 사람으로 생의 에너지를 찾아 가는 모습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아나와의 만남은 우리 주변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 수업 활동 방향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 마치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삶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인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면을 깨닫게 된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무력하게 고립되어 가던 아나가 아버지를 찌른 뒤 보호 센터를 거쳐이모네와 살면서 자신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열다섯 살 소녀가 아버지를 찌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보다 아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나가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하여 읽을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즉, 학생들이 이 책을 특별한 일을 겪은 아나의 이야기로만 바라보지 않고, 삶의 문제를 한 인간이어떻게 살아 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은 학생들이 아나가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아나의 회복과 성장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읽기 전에 책 표지를 보며 이야기를 상상해 보고 빈칸을 채우며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며 읽는다. 이를 통해 아나의 변화를 자기 삶과 연관 지어 볼수 있는 심화 활동도 함께 덧붙였다. 이 활동으로 학생들은 책을 디딤돌 삼아 자기 세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수업 운영 계획

●●● 수업 성취 기준

[9국05-10]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2-10]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2-02] 독자의 배경지식, 읽기 맥락 등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9국02-09]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읽는다.

[9국05-0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3-05]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9국05-01]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한다.

●●● 수업 활동 방향

단계	주요 활동	비고 (차시)
읽기 전	내용 예측하기	활동지1 (1/6)
	메모하며 읽기 아 아나의 감정을 체크하면서 읽기 민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우며 읽기	활동지2 활동지3 (2~3/6)
읽기 중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 활동지의 질문에 답하며 내용을 이해하기 • 질문: 일기 쓰기의 의미, 아나의 심리, 아나의 주변 사람들, 아나의 변화, 해시태그 만들기 등	활동지4 (4/6)
읽기 후 (심화 활동)	내 삶과의 연결점 찾기 • '내 삶의 불행 극복 가이드 5' 만들기 • 아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선물하기	활동지5 (5/6)
읽기 후 (선택 활동)	다양하게 소설 즐기기 주제를 골라 토의하기 특집 신문 기사 만들기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활동	활동지6 (6/6)

Ⅲ. 교수학습 활동지

 활동지 1
 읽기 전
 내용 예측하기
 차시
 1/6

- 1. 1~2분 정도 제한된 시간 동안 표지를 보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대해 얘기하도록 합니다. 다음 사람은 앞사람과 겹치지 않게 말하도록 합니다.
- 2. 뒤표지의 소개 글은 꼭 문장으로 요약하지 않고 핵심 단어 1~2개를 찾아도 좋습니다.
- 3. 제목과 연결되는 문장을 만들 때는 짝 활동으로 두 명이 각각 앞과 뒤에 문장 한 개씩을 만들어도 됩니다.

1 표지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1. 앞표지 그림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 말해 봅니다.
- 성별을 알 수 없는 아이가 바람을 맞으며 숲속에 있다.
- 나뭇잎들 아래로 빛이 비치는데 신비한 느낌이 난다.
- 아이는 편안한 자세로 바람을 맞고 있다.
- 2. 뒤표지에는 이야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실려 있습니다.
 - 이 소개 글을 한 줄로 요약해 봅니다.
- 아버지를 찌른 아나, 어떻게 될까?
- 보호 센터에 온 아이는 일기장을 채워 나간다.
- 충격 실화, 열다섯 살 아이가 저지른 사건
- 3. 앞뒤 표지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 봅니다.
- 무거운 내용일 것 같은데 표지 그림이 밝아서 해피엔딩일 것이다.
- 표지 그림이 신비로워서 주인공이 환상 세계의 도움을 받을 것 같다.
- 열다섯 아이가 아버지를 찌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다.
 - 2 이 책의 제목은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입니다. 제목 앞이나 뒤에 연결되는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 나는 달라지기로 다짐했어.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
-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 하지만 답을 알아낼 순 없었어.

활동지 2 읽기 중 아나의 감정 파악하기 차시 2/

책을 읽으며 아나가 느꼈을 감정을 찾아봅시다. 책에서 아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외에도 학생들이 짐작한 감정도 찾아보도록 합니다.

1. 1부와 2부에서 각각 아나가 느낀 감정에 ○ 표시를 해 봅니다.

1부

가볍다	간절하다	감사하다	걱정된다	겁난다	고독하다	고통스럽다
공허하다	괴롭다	긴장된다	놀랍다	담담하다	당당하다	두렵다
떳떳하다	막막하다	만족스럽다	명랑하다	무기력하다	부끄럽다	불안하다
뿌듯하다	살맛 난다	서럽다	서운하다	슬프다	신난다	실망스럽다
안정감이 든다	어리둥절하다	억울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울고 싶다	유쾌하다
자책한다	절망적이다	재미있다	최책감이 든다	지루하다	초조하다	태연하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허전하다	홀가분하다	활발하다	후련하다	희망적이다

2부

가볍다	간절하다	감사하다	걱정된다	겁난다	고독하다	고통스럽다
공허하다	괴롭다	긴장된다	놀랍다	담담하다	당당하다	두렵다
떳떳하다	막막하다	만족스럽다	명랑하다	무기력하다	부끄럽다	불안하다
뿌듯하다	살맛 난다	서럽다	서운하다	슬프다	신난다	실망스럽다
안정감이 든다	어리둥절하다	억울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울고 싶다	유쾌하다
자책한다	절망적이다	재미있다	최책감이 든다	지루하다	초조하다	태연하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허전하다	홀가분하다	활발하다	후련하다	희망적이다

2. 이 책에서 아나가 느낀 감정들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해 봅시다. 2부에서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긴 하지만 아나에겐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놀 나이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아나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활동지 3 읽기 중 빈칸 채우며 줄거리 파악하기 차시 3/6

책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 채워 봅시다.

- 책을 읽은 뒤에 일정 시간을 주고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 이 활동은 정답을 맞히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글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와 맥락상 비슷한 단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 모둠 활동으로 진행하여 여럿이 함께 알맞은 단어를 찾아내는 방식도 좋습니다.

1부

- 1. '나'의 이름은 (아나)이고, 나이는 (열다섯) 살이다.
- 2. 아나는 (보호 센터)에 있으며 이곳을 반은 병원이고 반은 (감옥)이라고 여긴다.
- 3. 아나는 마리사가 선물해 준 공책과 펜으로 (일기) 쓰기를 시작했다.
- 4. 아나는 '비올레타'라고 불리길 원하는데 비올레타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 5. 아나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아나에 대한 변론으로 (순간 정신 이상)에 비중을 둘 거라고 했다.
- 6. 아나는 보호 센터 방문 날인 일요일을 증오하는데 이유는 (방문 약속)이 없기 때문이다.
- 7. 아나가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말한다면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것이고, (거짓말)을 한다면 스스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 8. 아나는 자신과 같은 이름의 상담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 9. 아나의 동생은 집에 오는 것이 공포스러워 (학교)에서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한다.
- 10. 아나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책을 통해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생각을 한다.
- 11. 아나는 마리사의 권유대로 일기를 쓰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아 가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 12. 아나는 나에게 일어났던 끔찍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살인자)라고 말하며 공황 상태에 빠진다.
- 13. 아나는 보호 센터를 나와 이모네와 함께 살기 위해 이동하며 (차양)을 올리는 소리를 통해 그날을 떠올린다.
- 14. 아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추레한 엄마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 15. 아나는 동생 카르멘과 달리 학교에서 고립되기를 선택했는데 이는 스스로 (보호)받는다

- 고 느끼기 위한 방식이었다.
- 16. 아나는 수업 중에 학교에서 나와 충동적으로 루이스를 찾아가는데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 17. 아나는 루이스에게 (자물쇠)를 구해 달라고 하며 횡설수설한다.
- 18. 루이스는 아나를 돕고 싶어 하지만 아나의 (아버지)가 두려워 조심스러워한다.
- 19. 아나는 루이스와 얘기하며 집을 떠나 (이모)네 집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기뻐한다.
- 20. 집으로 돌아온 아나는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찌른다).

● 2부

- 1. 아나는 자기 인생에서 '(신이 나다)'라는 단어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모네 집에 와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 2. 아나의 이모는 빵 가게가 딸린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나는 일손을 보대기로 했다.
- 3. 아나는 새 학교에서 '라우라'라는 친구를 만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 (일기장)을 선물하다.
- 4. 아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즐거워하지만, 한편으로 모든 것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다.
- 5. 아나는 산책하러 간 숲속에서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는데 그때 머릿속 어딘가에서 '(너는 전부야)'라는 소리를 듣는다.
- 6. 아나는 자신과 여동생은 아직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있으며 (고통)밖에 맛보지 못해 힘든 엄마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7. 아나는 동생에게 똑바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은 덜 (끔찍한) 일을 생각하고 더 (잘된)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 8. 아나는 크리스마스 (공연) 준비를 하면서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9. 아나는 다시 사랑을 원하게 되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0. 아나는 라우라의 오빠 (미겔)을 만나면서 진정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 둘에 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숲)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 11. 아나는 아버지가 풀려났으며 딸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손톱)을 물어 뜯기 시작한다.
- 12. 아버지가 법적인 딸들을 데리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던 중 방송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 13. 아나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지만 동생을 (보호)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한다.
- 14. 이모는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형부에 맞서 싸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망 소식에

혼란스러워한다.

- 15. 아버지의 사고는 아나와 카르멘에게 (운명)이 길을 터 주고 있는 것이다.
- 16. 아나가 미겔에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는 것은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지만 아나는 아직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17. 아나는 숲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 낸 후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을 받으며, 사건보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이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 18. 다시 학교에 간 아나는 라우라로부터 미겔의 선물을 전해 받는다. 거기엔 조그만 방울과 함께 "(웃고 행복해져)"라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 19. 아나는 마리사에게 선물 받은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쓰며, 미쳐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마리사의 말이 옳았음을 안다.
- 20.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온 미겔에게 아나는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활동지 4 일기후 질문에 답하며 깊이 읽기 차시 4/6

소설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일기를 쓴다는 것은 아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책 속에서 일기 쓰기에 대한 아나의 생각을 찾아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 아나에게 일기 쓰기란 자신의 마음을 나눌 존재가 있다는 뜻이다. 아버지를 찌르고 보호 센터에 있을 때 무척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 마음을 일기장에 옮기면서 아나는 차 회복되어 가고 희망을 품게 된다. 아나는 일기를 쓰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 간다고 했다. 일기를 쓰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있어서 아나는 절망과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2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아나의 심리 상태가 담긴 문장을 1부에서 찿아 써 봅니다.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으로 각자 1~2개의 문장을 찾은 다음 문장을 함께 모아 보는 활동도 좋습니다.

- 32쪽, 집에서 지낼 때는 계속되는 공포로 몸을 떨었다.
- 51쪽, 집 안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 54쪽, 추레한 엄마 모습을 보면 목이 메어 왔다. 아니, 온몸이 떨려 오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힘이 빠졌다. 스스로가 힘없는 존재이며 해결책을 찾을 능력이 없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일 수도 있었다.
- 55쪽, 집에서는 집중할 수가 없었고, 도서관에서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관찰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 59쪽, 아나 자신의 삶은 살아 나갈 가치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토록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나날이 이어져도 삶을 놓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 아나의 주변 인물들 가운데 아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 세 명을 고르고, 그들이 아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마리사, 보호 센터의 상담 선생님, 루이스, 라우라, 미겔, 이모와 이모부

- 마리사: 아나에게 글쓰기를 추천해서 아나가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보호 센터의 상담 선생님: 충고 없이 아나의 얘기를 잘 들어 주고 아나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이모와 이모부: 아나와 아나의 동생이 다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함께 살면서 보호자가 되는 것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4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아나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들이 책에 서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나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아나에게 아버지는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증오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아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

5 아나는 자기 생일에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일기에 썼습니다. 아나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인지 말해 봅시다.

학생들이 변화한 부분을 찾기 어려워할 때는 '학교생활, 자존감, 사랑, 생각하는 법' 같은 구체적인 항목을 예시로 들어 줍니다. 그래도 정리하는 걸 어려워한다면 아나가 일기장에 자신이 변화를 쓴 문장을 찾아보는 활동도 좋습니다.

- 아나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태도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지 만 이모네 집에서 다니게 된 새 학교에선 마음을 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행사에서 춤을 추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 게 되었다.

아나가 보호 센터에서 본 책 속 문장 '네가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 라'와, 숲에서 들었던 '너는 모든 것이야'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애 얘기해 봅시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아나에게 책 속 문장과 숲에서 들었던 말은 아나 자신이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를 삶의 주체로 인식하게 해 주었음을 상기시킵니다.

- 내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부모나 선생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생각한 것들로 만들어 가는 것 이다. 그리고 나는 나라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좋아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나를 위해 잘 이겨 내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내 삶 을 꾸려 가야 한다.

7 이 소설에 어울리는 해시태그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이유를 써 봅시다.

이 소설의 또 다른 제목이나 홍보 문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시태그를 만들어 보도록 안내합니다.

- # 이제는_평범한_소녀로: 가정 폭력으로 끔찍한 일을 겪은 소녀가 자신을 회복하며 행복 한 일상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점을 표현했다.
- # 숲에서_찾은_삶의_이유: 아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아나가 숲에서 들었던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다.

활동지 5 읽기후 내 삶과 관련짓기 차시 5/6

아나의 경우를 참고해서 내 삶에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내 삶의 불행 극복 가이드 5'를 만들어 봅시다.

아나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을 떠올려 보도록 안내합니다.

- 1. 일단 울고 욕하자. 어떤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슬프고 힘들 것이다. 그때 감정을 누르지 말고 실컷 울자. 눈물이 나지 않으면 욕이라도 하자.
- 2. 일기장에 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내 기분과 마음은 어떠한지 솔직하고 자세하게 쓰자. 꼭 일기장이 아니라도 좋다.
- 3. 친구들에게 얘기해도 좋지만 상담 선생님을 찾아간다.
- 4. 자연을 찾아간다. 인적이 없고 안전한 곳을 평소에 알아 두고 마음이 복잡할 때 찾아가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스마트폰 알람도 끄도록 한다.
- 5.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
 - 아나에게 노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2 적절한 노래를 찾아서 그 노래에서 인상 깊은 가사를 옮겨 쓰고 아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적어 봅니다.

예시 1	김윤아 〈타인의 고통〉
노래	미안해 / 너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 그리 많지 않았어 비겁한 무력한 / 이런 나라서 너무 미안해 한 방울 한 방울 / 너의 눈을 적시던 / 눈물을 헤아려 보네 하나 둘 한없이 / 너의 마음에 쌓이던 / 의문을 되뇌어 보네 이 세상은 언제나 / 이해할 수 없는 / 모순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말하지 / 우리들은 아직 어리고 / 어리석을 뿐이라고
메시지	아나야, 이 노래는 내가 힘들 때 많이 들었던 노래야. 이 노래를 들으면 괴로운 내 마음이 위로받는 듯했어. 너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우리는 아직 어려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또 이 세상은 우리의 바람처럼 되지도 않고 말이야. 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예시 2	조이 〈안녕〉
노래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 내 마음속의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Oh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햇살 가득한 날들이여 안녕 / 긴 잠에서 날 깨워 준 아침이여 안녕 Oh 너의 유리처럼 맑은 미소가 / 세상을 환히 웃음 짓게 할 거야 Goodbye oh oh oh / 영원히 Oh oh oh
메시지	책을 덮고 나서 이 노래가 떠올랐어. 네가 웃음을 되찾고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야. 이제 '어제의 아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나만 있을 거라고 믿어. 노래 가사처럼 미련 없이 과거를 보내고 환한 웃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응원할게.

활동지 6 읽기 후 다양하게 소설 즐기기 차시 6/6

1 다음 주제 가운데 2~3개를 골라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봅시다.

- 4인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모둠별로 주제에 대해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모둠 토의 내용을 다른 모둠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시간에 따라 토의 주제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모둠원이 합의하여 새로운 주제를 정할 수 도 있습니다.
- 각 모둠에서 모둠원들이 각각 진행자, 기록자, 발표자, 리액션 담당의 역할을 맡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토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진행자는 토의 주제에 대해 모둠원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록자는 친구들의 발표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것을 기록합니다. 발표자는 모둠 토의가 끝난 후 기록자가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 모둠의 토의 내용을 발표하고, 리액션 담당은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적절히 호응하여 토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❶ 일기 쓰기 경험	❷불안할 때 나의 행동	③ 학교에서의 내 생활 방식
4 폭력의 영향	6 삶의 힘이 차올랐던 경험	6 아나와 같은 친구를 만난다면
7 가정 폭력의 원인	3 가정 폭력을 근절하려면	ඉ자연에서 위로받은 경험

- 2 아나의 이야기를 신문의 특집 기사로 만들어 봅시다. 표제와 기사 내용, 그에 어울리는 이미지로 특집 기사를 작성해 봅니다.
-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아나의 이야기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한 후에 기사 내용에 들어가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그 뒤에 적절한 표제를 만들고 어 떤 이미지를 넣을 건지 정합니다.
- 실제 신문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신문 기사의 형식적 특징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표제	한 청소년에게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	
기사 내용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소녀가 다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 있어 기자가 직접 만나 보았다. 열다섯 소녀 아나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찌른후 보호 센터를 거쳐 이모네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상담을 받고 이모네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건강한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자가 만난 아나는 친구와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는 등 평범한 소녀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청소년의 성장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폭력 등의 문제로 가정에서고립된 청소년에게는 더욱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무력했던 아나의모습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나가 아버지를 찌르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지 친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나의 사진

3 비주얼 씽킹을 활용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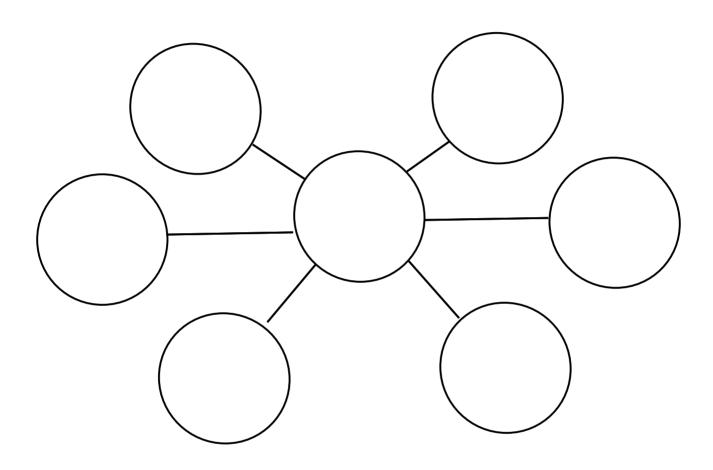
비주얼씽킹(Visual Thinking)이란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내용의 이해와 정리에 효율적입니다. 생각과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그림의 완성도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선과 색만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그림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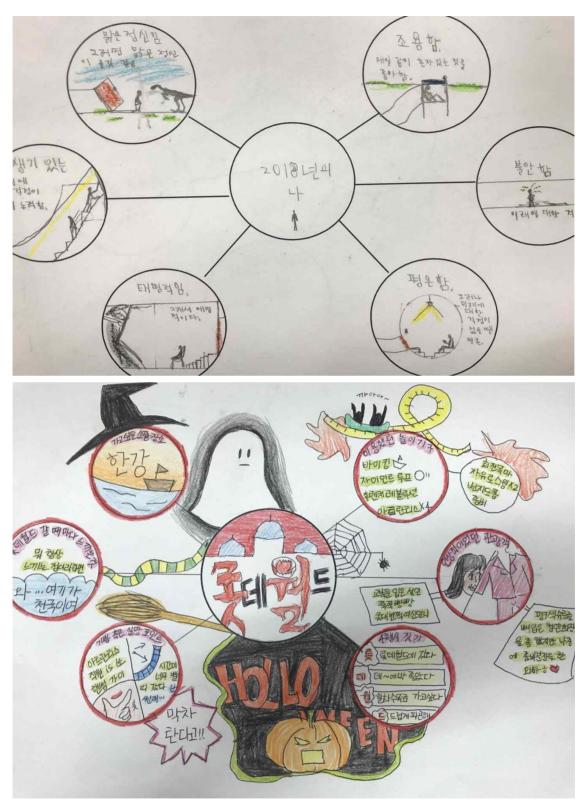
1. 핑거형 비주얼 씽킹으로 아나를 소개하기

다음 칸에 자신의 한쪽 손을 대고 모양을 따라 그립니다. 손바닥 부분에는 아나를 표현하는 핵심 이미지를 그린 뒤 손가락에는 아나의 특징을 표현합니다. 손가락 부분에 특징을 나타 내는 짧은 글을 쓰고, 손톱 부분에는 그 특징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2. 버블형 비주얼 씽킹으로 아나의 변화를 정리하기 가운데 버블에는 아나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주변 버블에는 아나의 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표현합니다.





[버블형 비주얼씽킹 예시]

Ⅳ. 평가 계획

●●● 평가상의 유의점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생들이 책 한 권을 긴 호흡으로 온전히 읽고, 책 내용과 자기 삶을 연관 지어 이해하고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통합적 언어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독서의 전 과정이 골고루 다뤄져야 한다. 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깊이 음미하여 자기 삶과 연관 지점을 찾아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평가 기준을 미리 제시하고 과정 평가로써 활동지를 수시로 점검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읽기 후 활동까지 끝난 뒤에는 소감 쓰기 같은 자기 평가를 통해 '읽기 태도'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 세부 평가표

영역 (점수)	영역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 점	점수 및 확인
한 학기 한 권 읽기 (100점)	읽기 전	표지와 제목으로 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주인공의 감정을 파악하면서 글의 주요 내용을 능동적으로 이해하였다.	30	
		표지와 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을 예측하고 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며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였다.	20	
		읽기 전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였고,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며 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10	
	읽기 중	주요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여 주인공의 성장과 변화 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서술하였다.	30	
		주요 사건의 의미와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20	
		주요 사건의 의미와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를 글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10	
	읽기 후	책의 주제를 깊이 이해하고 자기 삶과 연계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30	
		책의 주제와 자기 삶과의 연관성을 찾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20	
		책의 주제를 자기 삶과의 연결점을 찾아 이해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 하다.	10	
	읽기 태도	능동적인 독서를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내면화하고 독서를 통해 성장하였다.	10	
		독서를 통한 이해와 감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5	

●●●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특기사항 기재 예시

-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마리아 바사르트)를 읽고 주인공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주제 의식을 내면화하여 독서를 통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 냄.
-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로 《그리고 바람이 불었어》(마리아 바사르트)를 읽고 독서 활동의 모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함.